佐12八年 0日10月日

뉴스홈 | **최신기사** 

32M18899

# 올림픽 직격탄에 극장가 '울상'..관객수 '뚝'

송고시간 | 2008-08-12 07:05

日本語











김병규 기자

<올림픽 직격탄에 극장가 '울상'..관객수 '뚝'>멀티플렉스 주말 관객 9~14% 감소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2008 베이징 올림픽 초반 한국 대표팀의 잇단 승전보로 온국민이 환호하고 있지만 여 름 성수기 극장가는 관객수가 줄어 울상이다.

12일 영화계에 따르면 9~10일 멀티플렉스 극장인 CGV 전국 체인의 관객수는 전주인 2~3일 주말에 비해 13% 감소 했다. 8월 초순이 통상적으로 여름 극장가의 관객수가 피크에 이르는 때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또 다른 멀티플렉스 롯데시네마 역시 토요일인 9일 관객수는 1주일 전인 2일에 비해 9% 줄었고, 일요일인 10일 관객 수 역시 전주 일요일인 3일에 비해 14% 감소했다.

관객수가 줄어든 것은 박스오피스 상위 영화의 관객수만 봐도 확 인할 수 있다. '다크나이트', '미이라3', '고死' 등 박스오피스 1~3 위 영화의 8~10일 사흘간 관객수 합계는 167만명으로 1주일전 인 1~3일 1위 영화였던 '미이라3' 1편의 관객수 149만 5천명과 별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다.

멀티플렉스 극장의 한 관계자는 "관객수 감소에 올림픽이 어느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하겠지만 일단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며 "지난 주말의 관객수 감소가 올림픽 전체의 영향인지 올림픽 중에서도 박태환 수영 같은 빅 이벤트가 열렸기 때문인지는 명확치 않다"고 말했다.

영화계는 이런 관객 감소에 다소 당황하고 있다. 과거 올림픽은 극장 관객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 제로 아테네 올림픽이 열린 2004년 8월에는 전달인 7월과 다음달인 9월보다 관객수가 오히려 많았다.

지난주 개봉한 상영작의 한 관계자는 "예상만큼 극장이 붐비지 않았다"고 아쉬워하면서 "날이 더워서 관객수 증가 요인 이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외출을 포기하고 TV 앞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올림픽이 열리는 베이징과 시차가 없어 낮경기가 많은 것이 원인인 듯 하다"고 말했다.

예년과 달리 올림픽이 초반부터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점 역시 예상치 못했던 변수다. 이전의 올림픽에서는 중반 이후 열 풍이 거셌지만 올해는 메달밭인 양궁의 일정이 앞으로 당겨졌고 수영이 박태환의 금메달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초반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올림픽에 쏠리고 있다.

실제 일요일인 10일 박태환이 금메달을 땄던 수영 남자 자유형 400m 경기의 서울지역 시청률은 42.1%였으며 여자 양궁 단체전 결승의 서울 시청률은 51.1% 까지 올라갔다.

올림픽 관련 뉴스가 화제의 중심에 서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언론 매체에서 영화 관련 기사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악재다. KBS의 경우 올림픽 기간 2주간 영화정보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으며 다른 방송국의 영화정보 프로그램 역시 올림픽 기간 편성 취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 기간 개봉을 계획하고 있는 한 영화의 관계자는 "과거의 경우만 생각해 올림픽의 영향을 과소평가했지만 생각



1010회











### 핫뉴스 →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다섯식구 평균키 203cm...美 가족 '최장신' 기네스북 등재

'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보다 초반 열풍이 거세 당황하고 있다"며 "그래도 7월보다는 8월 극장가에 화제작이 적은 편이라서 올림픽 기간에도 꾸준히 관객들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bkkim@yna.co.kr







- <올림픽> 뜨는 업종, 지는 업종
- <'올림픽 특수' 실종..청주 유통업계 '울상'>
- <올림픽> "中 특수는 커녕 피해"..기업들 울상
- <올림픽> 유통업, 올림픽 · 더위가 `매출 효자'(종합)

##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8/12 07:05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2년1개월만 거리두기 전면해제...다음주부터 인원 시간 제한없다

尹당선인 "경제 복합위기 징후 뚜렷...물가상승 장기화 대비 해야"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문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어"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 댓글 많은 뉴스

】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57 <sup>찰에</sup> 고발

**3**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 56 동재개 예열?

**5** [팩트체크]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계곡살인을 검 ☑ 29 찰이 혐의 밝혀냈다?

뭐하고 놀까? #홍→

유튜브채널 연압뉴스











sns **f** 





Ö

테미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뉴스+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계약사/제휴문의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관련사이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외국어